이기웅의 영혼도서관

전쟁과 개똥藥-6·25 전란을 돌이켜 보다

경기도 파주 '책의 도시'에서는 6·25 정전(停戰) 60주년을 기념하는 '2013년, 전쟁과 평화'전이 열리고 있다. 1500여 점의 귀중한 전쟁 관계 도서와 문헌들을, 전쟁의 역사와 현장과 함께 그동안의 학술적 성과를 망라하면서, 올해 발간된 책들까지 일괄해서 볼 수 있다.

꽤나 방대하다고 할 수 있는 특정분야의 이 문헌들을 통해 제 1, 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의 참상, 그 비극의 현장을 생생히 느끼게 한다는 점에서 보기 드문 전시회라 평가받고 있다.

전시장에서는 이런 구호들을 읽을 수 있다. "인류가 전쟁을 끝내지 않는다면, 전쟁이 인류를 끝낼 것이다."(존 F. 케네디) "매우 필요하고 정의롭다고 하더라도 전쟁은 생각하지 마라. 그것은 범죄행위이다."(어니스트 헤밍웨이) "전쟁을 하고 싶다는 자들, 그들은 모두 전쟁을 겪어 보지 못한 이들이다."(래리 리브스)

이와 함께 전쟁의 참상을 보여 주는 여러 사진들이 붙어 있고, 전시된 책들을 펼쳐드는 순간 이런 문맥과 이미지들이 책 속 도처에 나타난다.

결국 이 전시는 전쟁의 비극적 실상과 전모를 알림으로써, 어떻게든 전쟁은 막아야 하고, 평화를 위한 노력이야말로 값지다는 사실을 일깨운다. 또한, 내가 평소에 주장하듯이 책이야말로 우리 인간에게 '평화의 도구'로서 기여해야 한다는 진리를 실천적으로 보여 준다.

6·25 나는 고향인 강원도 강릉 선교장(船橋莊)에서 살고 있었다. 경포초등학교 4학년이었다. 1950년 6월 전쟁이 터지자 동해안 지역의 전세(戰勢) 역시 일방적이어서, 피란 길에 나섰던 우리 선교장 일행은 앞질러 내려온 북한군에 의해 발길을 고향집으로 되돌려야 했다.

이때부터 선교장은 석 달 내내 북한군 아래 놓여 있다가, 서울보다는 이틀 늦은 9월 30일 국군에 의해 수복되었다. 하지만 미처 후퇴하지 못한 북한군들이 낙오되어 태백산맥으로 숨어들었고, 고립된 그들이 생필품을 얻기 위해 수시로 민촌으로 쳐내려 오곤 하여, 국군 및 경찰과의 잦은 충돌로 우리는 노상 불안에 떨어야 했다.

그때 사상이나 이념과 관계없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비극의 풍경을 목격했던 어린 우리들이 60년 세월을 보내고도 그대로인 오늘의 분단 현실을 보면서, 누구의 책임이랄 수 없는 우리 모습이 새삼 부끄럽고, 한심스럽고, 안타깝기만 하다.

1951년 새해를 맞으면서는 1·4후퇴라는 새로운 전쟁 상태에 놓이게 된다. 유엔군과 국군의 북진으로 북한군이 궤멸 상태에 이르자 중공군이 개입한 것이다. 이른바 인해전술의 기세에 눌려, 유엔군과 국군은 다시금 후퇴하기 시작한다. 불안해진 우리 식구들도 피란 길에 올라, 울진의 죽변(竹邊)이라는 산촌마을에서 그해 겨울을 보냈다.

그때의 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끼니를 잇지 못해 모두 영양실조에 시달렸고, 여러 질병이 뒤따랐다. 의사이셨던 아버지도 간단한 외과적 처치밖에는 할 수 없었다. 그런데 그곳에서 두 살배기 어린 아우가 몹쓸 홍역을 앓게 됐다. 당시 어린아이에게 홍역은 여간 위험한 것이 아니었는데, 병은 심해 가기만 하고 어떤 처치도 할 수 없는 신세가 된 것이다.

민간요법에 개똥을 끓여 먹이면 효험을 본다는 속설이 있었다.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 어머니는 이 속설을 따르기로 결심하신다. 의사이신 아버지는 아예 고개를 돌려 모른 체하셨다. 어머니는 형과 나에게 개똥을 주워 오도록 엄명을 내리셨다.

하지만 산골마을에 개가 있어 봤자 빤했고, 한겨울 얼어붙은 산야에 아무리 눈 씻고 보아도 어디 말라 비틀어진 개똥이라도 있었겠는가. 개똥도 막상 약에 쓰려니 없었던 것이다. 우리 형제는 거의 한나절을 헤맨 끝에, 철 지난 고추밭에서 비바람에 씻기고 바랜 개똥 한 덩이를 찾아냈고, 어머니는 이를 냄비에 넣고 한약 달이듯이 조심스럽게 끓이셨다.

그 후에 어린 아우가 그걸 먹고 어쩐지, 그 일에 관해 형과 나는 너무나 끔찍하여 기억에 담지 않았다. 우리가 기댈 그 어떤 것도 없었던 전시 상황에서 어머니의 자식 구하기 약 처방을 어느 누구도 거역할 수 없었다.

의사인 아버지까지도, 약 아닌 개똥약의 효험을 믿는 이는 없겠지만, 어린 자식을 살려야겠다는 뜨거운 모성 때문인지, 아우는 6·25를 지내고 환갑, 진갑을 잘 넘긴 지금까지 건재해 있다.

전시에 소개된, 당시의 처참한 상황을 기록한 사진집들을 보노라면, 이런 이야기는 작은 에피소드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전쟁으로 극한에 내몰린 가족의 비참했던 모습은, 어린 나의 눈에 지울 수 없는 이미지로 남아 있다.

〈열화당 대표〉

양동옥의 S 스토리

다양한 사랑의 모양…내 사랑은 어떤 모양일까

성교육전문가·심리학박사

'열정은 빨리 달아오르는 만큼 빨리 식는다. 친밀감은 천천히, 헌신은 그보다도 더디게 발달한다.' 심리학 교수인 스턴버그는 사랑의 본질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측정했는데, 그는 사랑이 친밀감, 열정, 헌신의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졌다고 말한다.

친밀감은 두 사람이 개인적 경험을 나누며 서로를 이해하는 것 그리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의지하고 싶은 정서적인 부분이다.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서는 기초 공사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처럼, 친밀감은 사랑의 초석으로 서로에게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야만 얻을 수 있다. 친밀감은 만남 초기에 천천히 발달하며 시간이 흐를수록 꾸준히 증가한다.

열정은 두 사람이 하나가 되고 싶은 성적 욕망을 말한다. 서로를 향한 설렘과 매력을 바탕으로 육체적으로 다가가려는 동기적인 부분이다. 금세 끓었다가 식는 냄비와 같이 열정은 만남 초기에 급격하게 발달하여 그 절정에 이른 후, 만남을 지속할수록 감소하는 형태를 보인다. 그러나 콩깍지가 씌운 듯 평생 서로를 향한 열정을 유지하는 사람들도 있다.

헌신은 사랑을 약속하는 것으로, 사랑에 빠진 것을 인지하고 상대와 사귀기로 결정하는 것부터 그 사랑을 지켜나가기 위해 노력하며 헌신하려는 인지적 부분이다. 한 사람을 사랑하기로 한 결정과 책임을 드러내는 행동이 바로 결혼이다. 헌신은 만남 초기에 더디게 발달하지만 만남이 안정되면 그 비중이 커지게 된다.

흥미로운 것은 사랑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사랑의 요소 중 오직 한 가지 혹은 두 가지만 발달하거나 세 가지 모두 발달할 수도 있다. 사랑의 요소 중 친밀감만이 발달한 형태를 '우정'이라고 한다. 육체적 열정이나 장기간의 헌신 없이, 서로의 복지나 안녕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형태는 동성 혹은 이성 간의 친구 관계에서 흔히 나타난다.

큐피드 화살에 맞은 것처럼, 첫눈에 반하는 사랑을 '도취적 사랑'이라고 한다. 친밀감이나 헌신이 발달하기도 전에 상대의 육체적 매력에 사로잡혀 끓어오르는 열정에 빠진 것이다. 도취적 사랑은 순식간에 달아올라 빨리 식어버리는 위험성이 있지만, 서로 간에 친밀감이 형성된다면 다른 형태의 사랑으로 발전할 수 있다.

두 사람이 오랜 시간을 함께하면서 서로를 향한 관심과 배려가 소홀해지고 육체적인 매력 또한 감소하여 관계의 의무와 책임만이 남아 있는 것을 '공허한 사랑'이라고 한다. 집안이나 조건에 맞는 상대와 결혼하는 예도 여기에 해당된다. 이러한 의무적인 관계는 아무도 반겨주지 않는 텅 빈 집과 같아서 공허하고 쓸쓸하다.

'낭만적 사랑'은 친밀감과 열정이 높은 사랑의 형태이다. 서로 호감을 느낀 두 사람이 만남을 지속하면서 정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끌리는 것이다. 이러한 사랑은 청년기나 성인 초기의 사람들에게 흔하게 나타난다. 이 시기에는 학업, 직업, 경제 활동 영역에서 불안정하므로 두 사람의 미래를 약속하는 결정을 미루게 된다.

서로의 육체적 매력에 끌려,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결혼을 서두르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사랑의 기초인 친밀감이 형성되지 않은 채 열정에 휩싸여 서로에게 사랑을 헌신한다는 측면에서 '얼빠진 사랑'이라고 부른다. 순식간에 끓어오르는 열정 때문에 마치 완벽한 짝을 만난 것처럼 행복하고 들뜨지만, 친밀감이라는 안정감이 빠져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우애적 사랑'은 친밀감과 헌신이 발달한 것으로 만남의 시간이 흘러 서로에 대한 가슴 떨림이나 신체적 매력은 다소 감소하지만, 그 자리를 신뢰와 배려, 헌신으로 채워 나가며 편안한 관계를 유지한다. 이러한 사랑은 두 사람이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벗이며 소중한 존재로, 세월과 함께 무르익은 감정을 통해 우애적인 관계를 유지한다.

서로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배려, 육체적 끌림, 평생 함께하고자 하는 욕구, 즉 친밀감과 열정, 헌신이 잘 버무려진 것을 '성숙한 사랑'이라고 한다. 성숙한 사랑은 가능한 것일까? 성숙한 사랑을 경험할 수는 있어도 그 사랑을 오랫동안 지속해 나가리라는 보장은 없다. 그 사랑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수반되지 않으면 한순간에 불안정한 사랑으로 변하게 된다.

성숙한 사랑으로 결혼하더라도 결혼 기간이 길어지면 서로에 대한 열정이 약간씩 식으면서 우애적 사랑으로 바뀌게 된다. 이것은 장기적인 관계에서 가장 자연스럽고 건강한 사랑의 표현이다. 하지만 사랑의 요소 중 하나만 남아 있거나 혹은 친밀감, 열정, 그리고 헌신이 모두 사라져 사랑이라 부를 수 없는 관계를 지속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봐야 한다. 성숙한 사랑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다. 서로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의 산물이다.

기고

물자원, 수계별·유역별 통합관리 바람직

허을석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장

물은 인간의 생명과 생활에 필수적인 요소로 경제, 산업 및 문화 등 각종 활동을 위한 중요한 자원이므로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의무이다.

농업용수는 상류에서 공급되어 사용한 용수 대부분이 하천이나 지하수로 환원되어 하류에서 재이용되는 자연순환형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수자원함양, 수질정화, 기후완화, 경관 형성, 친수공간 조성, 생태계 보전 등 다양한 다원적 가치가 있다.

농업용수는 크게 생산의 물, 생활의 물, 환경의 물과 같은 성격을 갖는다. 생산의 물은 농업용수의 생산재로서 성격을 표시하는 것으로 관개용수에 해당한다. 생활의 물과 환경의 물은 최근 많이 언급되는 지역용수를 말하여 농업용수의 이용이 지역에 가져오는 생산 이외의 효용을 위하여 흘러야 하는 다원적 기능을 가진 물을 말한다. 기존의 농업용수는 논농사를 위한 농업용수가 대부분이었으나 농촌지역의 생활환경변화와 밭용수 수요증가, 사계절 공급 등 농업환경 변화에 따라 전통적인 생산재로서 성격도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전통적인 관개용수에서 지역용수 등 새로운 패러다임을 포함토록 전환해야하며 이에 따라 기존의 농업용수개발 및 관리체계도 변화시켜야 한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국가 수자원정책 방향이 새로운 변화가 감지되고 있으며, 과거의 물관리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Smart 물관리 체계 구축을 추진하는 등 정부차원의 다양한 정책변화가 시도될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공사에서도 이러한 정부의 수자원정책과 환경변화에 대한 선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용수관리와 시설관리를 포함한 유지관리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정책·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물관리 목표설정과 주요 추진전략 등을 재설정하고 있다. 또 물분야 대외전문가로 구성된 농어촌 물포럼을 구성·운영하여 농어촌용수관리를 위한 아젠다를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농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 과제 발굴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인력중심의 기존 물관리의 저효율성을 극복하고 용수배분을 합리화하는 과학적인 물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자동수위계측기, 유량·영상계측 시스템(CCTV) 등의 정밀계측시스템을 구축하고 산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물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합하여 IT 기반의 수자원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해야한다.

농업용 수리시설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농업생산성을 높여 생산자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는 수단이며 국가적 차원에서는 중요한 사회적·경제적 자본인 점에서 그동안 생산자 및 생산자 조직과 국가(지방자치단체포함)에 의해 다양한 형태로 관리되어 왔다.

2000년도 3개 기관이 통합되고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지역은 용수이용료 부담이 없어진 데 반해 지방자치단체 구역에서는 농업인 부담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와 같은 과도기적 체제로부터 두 관리지역 간에서 농업인의 비용부담 및 용수관리 수준의 형평성, 용수관리의 효율화, 전문화, 규모화 등이 갈수록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농업인단체, 정치권 등에서 농업용수 이용료 및 관리 부담을 경감시키는 차원에서 물관리 일원화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물이용과 배분, 재해대응 능력의 제고 등의 차원에서 농업용수관리는 행정구역보다 수계별·유역별 통합관리 체계가 바람직하다. 다만, 공적 관리구역 확대에 따른 안정적인 유지관리 예산 확보, 시군관리 소유권 이전시 분쟁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예산 지원을 통해 일원화를 일괄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다. 농업용수는 미래 수자원으로서의 농업용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한 안정적 및 안전한 식량생산은 물론 농어촌지역의 환경 개선, 재해예방, 여타 사회적 능력과 문화적 가치 제고 등에 대한 영향을 현 세대는 물론 미래세대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활용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홍수피해 증가, 국내 수자원 정책의 변화, 지역용수로서의 기능 요구 등 기존의 논농사 위주의 농업용수에서 농촌지역수자원 요구를 충족하고 지역민들과 함께 수자원을 공유할 수 있도록 유역별 수량·수질을 통합 개발·관리토록 해야 할 것이다.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8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社 說

박 정부, 광주·전남 낙후 감안한 정책 펴라

이명박 정권 5년간 광주·전남지역은 인사든, 예산이든 모든 면에서 철저히 소외를 당했다. 지역 대선공약만 하더라도 26건 중 완료된 사업이 4대강의 일환인 '영산강 살리기'가 유일하다.

더욱 심각한 건 박근혜 정부도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장·차관 및 청와대 등 주요 인사에서 호남 출신이 배제된 데 이어 예산과 각종 현안사업들도 홀대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전남의 신성장동력 사업 예산이 추경에서 대부분 삭감됐으며, 낙후된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도로·철도 등 신규 SOC사업도 올 스톱됐다.

특히 민선 5기 내내 추진해온 대규모 사업도 '예비타당성 조사 강화'라는 벽에 가로막혀 또 다른 족쇄가 되고 있다. 게다가 복지정책 확대로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복지비는 급증하고 있고,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도 재추진될 조짐이다. 민선 5기를 마무리해야 할 마지막 1년을 남겨놓고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된 것이다.

이는 정부가 광주·전남 등 낙후지역을 고려하지 않고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게 주된 요인이다. 재정이 극히 빈약한 이 지역에 복지예산 부담을 차등이 아닌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복지예산 마련을 이유로 SOC 사업과 성장동력사업에 제동을 걸고 있는 것이다. 현재 수도권과 영남은 산업기반이 대부분 구축됐으나 광주·전남은 기반시설이 대단히 열악한 상황이다.

박 대통령은 후보시절 "호남의 눈물을 닦아주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지만 이 말이 더는 허언이 되지 않길 바란다. 지금이라도 SOC 사업 억제 지침을 철회하고, 낙후도가 고려된 탄력적인 예산편성을 해야 한다.

광주시와 전남도, 지역 국회의원들도 더 이상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정부가 이를 계속 강행한다면 투쟁을 해서라도 막아야 한다. 갈수록 심해지는 호남 낙후를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다.

한빛원전 위조부품 전면 재조사해야

〈옛 영광원전〉

한빛원전에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241개 부품이 납품된 사실이 밝혀졌다.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9일 한빛 3호기의 재가동 승인 과정에서 '위조 부품은 없다'고 발표했었지만 거짓으로 드러나 결국 부실검증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민주당 조경태 의원이 23일 원전안전위로부터 제출받은 '원전부품 시험성적서 잠정조사 현황'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전국 8곳의 원전 부품 12만 5000여 개를 조사한 결과, 69개 품목 355건의 부품에서 성적서 위조 사실이 적발됐다고 한다.

이 중 한빛 2호기는 13개 품목, 152건 부품이 위조한 것으로 밝혀져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또 한빛 3호기는 12개 품목 45건, 한빛 5호기와 6호기는 각각 3개 품목에서 26, 18개의 성적서가 위조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빛원전에서 확인된 검증서 위조 부품만 전체의 67.9%에 달한다고 하니 심히 안전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빛 3호기 재가동을 승인한 원안위가 며칠 후 슬그머니 시험성적서 위조 사실을 밝힌 것은 주민 신뢰에 치명타를 입혔다. 일각에서는 전력난을 우려해 원전 부품의 위조 사실을 은폐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마저 일고 있다.

원전 안전에 구멍이 뚫리고, 은폐 의혹까지 제기된 마당에 안전성을 아무리 강조한 들 주민들이 믿겠는가. 한수원과 원안위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다.

정부는 최근 원전비리 근절 종합대책을 밝힌 데로 당장 검증 체계를 확 바꾸고 부품 전수조사를 통해 조사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당면한 전력난을 넘기기 위해 이번에도 대충 넘기려다가는 더 큰 화를 자초할 수 있는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사태와 같은 대재앙을 부를 수 있는 원전 안전문제에 온 국민이 주시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無 等 鼓

트라우마

고(故) 김근태 의원의 수기를 바탕으로 한 '남영동 1985'는 정공법을 택한 작품이다. 영화는 주인공이 고문을 받았던 22일을 그대로 따라가며 물고문, 전기고문 등을 생생히 보여준다.

'고문기술자' 이근안으로 분한 이경영이 고문을 시작하기 전 항상 나지막이 부르는 휘파람 소리는 섬뜩하다. 카메라는 주인공의 환상 장면을 제외하고는 거의 고문실을 빠져나가지 않은채, 한 인간이 파괴되어 가는 과정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개봉 당시 인터뷰에서 정지영 감독은 "힘들기는 하겠지만 고문 장면을 표현할 때 주인공의 고통을 관객들이 그대로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평생을 아파하며 살고 있다. 주인공이 받는 고통만큼 두 시간의 아픔을 느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었다.

현재 빛고을아트센터에서 공연중인 1인극 '애꾸눈 광대'는 계엄군에 맞아 한 쪽 눈을 잃은 이지현씨가 주인공으로 출연한다. 그는 자신의 자전적 삶에 다른 5월 가족들의 이야기를 엮어 무대에 올렸다. 1980년 그날 이후 정신적 상처를 고스란히 안은 채 힘든 삶을 보내고 있는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또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여고생 동반 자살 사건'과 관련, 친구에게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자책감으로 자살을 시도하는 등 수십명의 여학생이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일명 트라우마는 정신적인 충격 때문에 사고 당시와 비슷한 상황이 되었을 때 불안해지는 증상을 말한다.

25일 국내 첫 고문피해자 전문치유센터인 '김근태 기념 치유센터'가 문을 열었다. 5월 가족들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있는 광주트라우마센터도 정혜신 박사와 상담치유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회가 나서 구성원의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들을 돌보고, 치유하는 데 개인들의 관심도 함께해야 할 때다.

/김미은 문화부장 mekim@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鎬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12 〈대표 FAX 222-4918〉 사 회 부 2200-616 〈대표 FAX 222-4267〉 경 제 부 2200-663 문화생활부 2200-661 여론매체부 2200-621 체 육 부 2200-697 사 진 부 2200-693 조 사 부 2200-57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